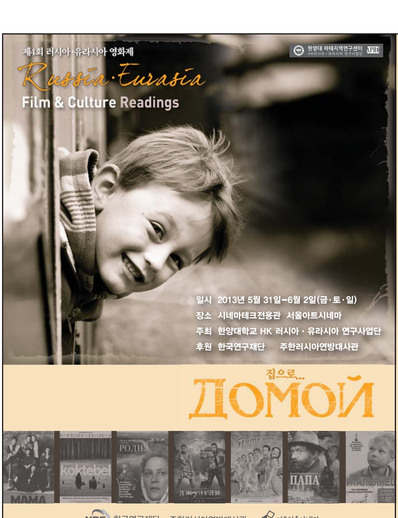

초대의 글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저희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HK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은 오는 5월 31일(금)부터 6월 2일(일)까지 3일간에 걸쳐 서울 낙원동에 위치한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다모이(Домой, 집으로)"라는 주제로 〈제4회 러시아 · 유라시아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본 연구사업단이 2010년 5월, 영화를 통해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문화를 널리 소개하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Russia · Eurasia Film & Culture Readings의 네 번째 기획으로, "현대 러시아 영화의 국가 : 순응과 저항사이"(제1회), "전쟁, 흑마니즘을 말하다"(제2회), "사랑, по-русски"(제3회)에 이어, 특별히 '가족'을 소재로 제작된 러시아의 대표 영화들을 통해 러시아인들의 고유한 삶의 양식과 궤적을 되짚어 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연구재단과 주한러시아연방대사관이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소비에트 시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족 이야기를 다룬 러시아 영화의 걸작들, 〈어머니〉, 〈콕테벨〉, 〈가족〉, 〈정글〉, 〈다섯 명의 신부들〉, 〈아버지〉, 〈이탈리안〉 등 총 7편의 영화가 차례로 상영됩니다. 이번에 선별된 작품들은 모두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영화들로서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학생들과 러시아 · 유라시아 연구사업단이 번역, 제작, 감수한 한글 자막과 함께 제공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족은 인간의 삶의 근원적 최소이자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포로서 세상살이에서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따라서 부부, 부모, 자식, 형제자매 등이 함께 엮어가는 가정생활에는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이 절절이 배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중심으로 러시아인들의 삶을 심층 있게 담아낸 걸작들을 통해 러시아인들의 사고와 행위의 질박한 실체를, 그들의 가치와 문화의 역동적 변모를 함께 가늠하고 공유하는 값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 김구호

상영 일정

상영일	상영시간	영화	감독
5월 31일 (금)	16:30~	〈어머니〉	데니스 예브스티그네예프
	19:00~	〈콕테벨〉	알렉세이 포포그렙스키, 보리스 흘레브니코프
6월 1일 (토)	14:00~	〈가족〉	니키타 미할코프
	16:30~	〈정글〉	알렉산드르 보이틴스키
	19:00~	〈5명의 신부들〉	카렌 오가네샨
6월 2일 (일)	14:00~	〈아버지〉	블라디미르 마어코프
	16:30~	〈이탈리안〉	안드레이 크라브추크

* 디지털 상영, 한글자막, 무료상영

상영 장소 시네마테크전용관